

여러분의 몫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 카네만은 그의 저서인 “생각, 빠르고 느림”에서 우리의 직관은 그리 믿을만 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행동을 하는 금발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곧 금발인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의식적 직관에 의존하는 빠른 “순간적 사고”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결론들을 재확인시켜 주는 느낌이나 인상들을 모으려는 경향이 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근거와 자료를 찾은 뒤 결론을 이끌어 내는 “느린 사고”는 우리의 본능적 반응을 보강하기 위해 중립적이거나 모순되는 단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만약 “적시”에 반사적인 반응과 분석을 하지 못한다면, 그 두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못한다면 또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인간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주 혼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상황마다 민첩한 반응을 보입니다. 민첩한 반응이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는 사람, 그리고 연습과 경험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습성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되면 과거 경험 속의 익숙한 패턴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이전 패턴이 강한 감정과 연관된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물론 고통을 회피하려 하거나, 경험을 활용하여 기쁨을 만들어 내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있지도 않은 패턴이나 적합하지 않은 패턴을 찾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과거의 해묵은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응하게 됩니다.

현시대의 정치담론을 대하는 우리들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역사적으로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공포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유무역과 자본의 세계화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과거와는 다른 정책들을 만들어 냈으며, 이제 정치용어로 접하게 되는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웨스트 버지

니아의 새로운 광산 개발 계획을 들었을 때, 예전에 아팔라치아 산맥에서 목격했던 오염된 강과 광산 폐기물 더미가 떠올랐습니다. 이 책을 읽고나니 저의 그런 기억이 이 책에서 말하는-마치 운동선수들이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바람직한 사고의 결과인지-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실수를 범하는-바람직하지 못한 사고의 결과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총회가 다가옴에 따라 이러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염려나 두려움 중 현재 보다는 과거에나 어울리는 분석에 근거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경험에서 얻은 지혜는 그 중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과거와 연결된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현재의 삶과 연결된 새로운 기쁨이나 고통의 길로 인도하실 때조차, “순간적 사고”가 과거의 감정이나 기존의 틀에 얼마나 자주 반응하는가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움직임에 열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표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총회에 임하는 우리의 임무 중 하나이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쉽지 않은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표단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성국 국장

헤리엇 올슨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심한이는 믿음·소망·사랑